

“더 늦기 전에 집사자”...전세대란에 전국 집값 ‘들썩’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그 돈이면 차라리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 17일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주택임대차시장과 관련한 뉴시스 취재진의 질문에 “전셋집만 찾던 세입자들도 전세난 지쳐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세 매물 자체가 없고, 전셋값마저 급등하면서 전세난을 견디지 못한 세입자들이 매수로 돌아섰”다며 “매매로 찾는 수요가 늘어 집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2주 연속 상승하는 등 전세난이 심화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지방 광역시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9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외곽지역에서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지방 광역시 집값 상승률이 통계 집계 이후 8년 6개월 만에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들썩이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은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매매에 나서고, 정부의 규제가 덜한 일부 수도권 지역과 지방 광역시에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셋값 대비 저렴한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매 거

서울 전셋값 72주 연속 상승...광역시 집값 상승률 8년 만에 최대

10월 주택매매 심리지수 낙 달 만에 반등...“부산·울산 상승 주도”

해법 못 찾는 정부...전셋값 급등→집값 상승→주거 불안 악순환

래량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72주째 오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폭도 더 커졌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서초구(0.22%)가 역세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남구(0.21%)는 학군 수요가 많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송파구(0.21%)와 강동구(0.20%)도 올랐다.

강북에서는 마포구(0.19%)가 공덕·성산동 등 직주근접성이 높거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강북구(0.15%)는 정비사업 영향으로 수유·미아동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은평구(0.13%)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응암·녹번동 단지가 강세를 보였다. 또 성동구(0.12%)는 금호동 중소형 및 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수도권 아파

트값은 0.15%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이어갔다. 인천은 지난주보다 0.01% 오른 0.16%를, 경기권은 지난주와 같은 0.23%를 기록했다. 다만, 경기에서는 비규제지역인 김포와 파주의 상승률은 여전히 강세다.

또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값도 0.27% 올라 통계 집계 이후 8년 6개월 만에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조정 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이 0.56% 급등했고, 대구(0.39%), 대전(0.37%), 울산(0.35%)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정부가 전셋값 대책을 고민하는 사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한동안 잠잠했던 집값을 다시 밀어 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주택 매매시장의 소비 심리지수가 하락세를 멈추고 낙 달 만에 반등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의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달 123.4에서 9.0p 오른 132.4를 기록했다. 지난 6월 133.8을 기록한 뒤 지난

9월까지 석 달 연속 하락했으나, 지난 달 상승 전환했다.

이 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의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된다. 심리지수가 95미만이면 하강, 95이상 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은 상승으로 분류된다.

서울의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7월 155.5에서 8월 137.5, 9월 129.5로 하락했으나, 지난달 131.4로 반등했다. 7·10 대책과 8·4 공급 대책으로 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월 123.7에서 지난달 129.9로 6.2p 상승했다. 지방 광역시의 매매시장 심리지수의 상승폭은 더 크다. 부산은 145.5로 전달(121.4) 대비 24.1p, 울산은 전달(131.8) 대비 20.9p, 대구는 전달(135.2) 대비 14.7p 상승했다.

전세난이 전국으로 점차 확산하면서 매매·전세시장 심리지수가 동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단기간 내 공급임대 공급물



량을 최대한 확보해 공급하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예상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새로운 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촉발된 지금의 전세난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셋값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변수인 신규 공급 물량도 갈수록 줄어든다. 내년부터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덩달아 전세 물건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서는 아파트 기준 총 2만3217 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올해 입주 물량(4만2173가구)의 절반 수준인 55.1%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으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집값이 상

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극심한 전세난으로 임대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고, 비규제 지역에 투자수요까지 몰리며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며 “당분간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전셋값 상승이 중저가 아파트값을 끌어 올리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이 상향평준화될 우려가 있다”며 “전세시장을 비롯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실수요 증이 원하는 지역과 시기에 맞게 공급 총량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희기자



‘블랙버스터에서 다양한 상품 구매하세요’ 18일 서울 홍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블랙버스터’ 행사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홍플러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점포와 온라인에서 대규모 ‘블랙버스터’ 할인행사 마지막 주차 행사를 전개, 총 1만여 종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사진=홍플러스 제공)

비트코인 2000만원 넘나...“유동성·기관투자자 유입”

비트코인 시세, 연초 대비 126% 상승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1900만원대를 돌파했다.

18일 CNBC 등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4% 이상 올라 1만7000달러를 돌파, 2018년 1월7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빗썬에선 이날 오전11시 기준 전일보다 4% 가량 오른 1953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연초 대비 126% 상승한 수준이다.

시장에선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국 정부가 유동성 풀기에 나서고,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본격화된 점이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전세계 사용자 3억5000만 명을 보유한 결제 기업 페이팔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 소식이 상승 기폭제가 됐다.

페이팔은 내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라이트 코인 등 4종의 가상자산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페이팔의 진출이 가상화폐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 평가들이 나왔다. 전통 금융업계의 시선도 달라졌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 JP모건은 미국의 대형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도 커스터디(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대안자산으로 금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무차별적인 유동성 공급 속에 화폐가치 하락, 달러 약세가 겹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점은 기관투자자 진입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관련 서비스를 출시 중이고 주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점차 기관투자자들의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17년의 광풍과는 사뭇 달라보인다”고 판단했다.

김민정기자

IPTV, 시장점유율 51.5%로 꾸준히 증가

총 가입자 3395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35만명 증가

IPTV 가입자 증가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IPTV 3사의 시장점유율이 51.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의 2020 상반기 가입자 수 조사·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2020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394만6826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2019년 하반기에 비해 35만명이 증가했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KT 758만 8574명(점유율 22.35%), SK브로드밴드 530만3258명(15.62%), LG유플러스 459만7805명(13.54%), LG헬로비전 392만5459명(11.56%), KT스카이라이프 307만8420명(9.07%), SK브로드밴드(SO) 300만5583명(8.85%) 순으로 집계됐다. IPTV 3사의 가입자 수 및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

한 가입자 수는 1067만명,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을 합산한 가입자 수는 852만명,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831만명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각각 31.42%(0.1p 감소), 25.10%(0.19%p 증가), 24.47%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번 상반기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의 합산규제 일몰 전후 시장점유율을 비교해보면 사업자별 증가폭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20년 상반기 가입자 증가폭은 감소(2019년 하반기 57만명 → 35만명)였으며, 2018년 상반기 증가폭이 감소한 이후 약 50만명대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번 2020년 상반기 증가폭은 30만명대로 조사됐다.

또한, 매체별 6개월간 평균 가입자 수는 IPTV 1748만9664명(51.52%), SO 1337만8742명(39.41%), 위성방송 307만8420명(9.07%)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별 가입자 수 동향을 보면, 2017년 11월부터 IPTV가입자 1수가

SO 가입자 수를 앞선 이후 IPTV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SO는 감소함에 따라 IPTV와 SO간 가입자 수 격차는 올해 6월 말 기준 약 451만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가입자 수 산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 가입자 14만9000명 및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 73만5000명은 가입자 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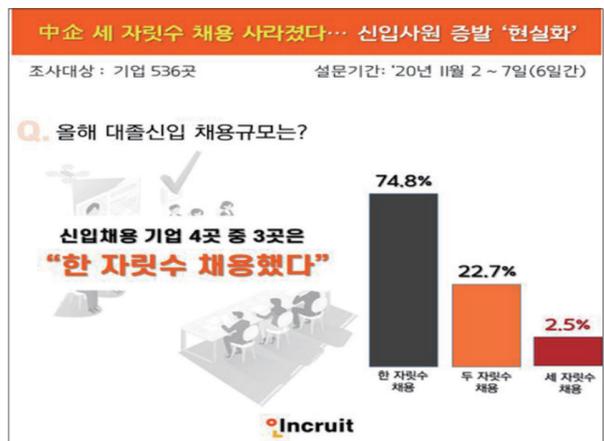
또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가 단일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상품의 가입자 156만명은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KT 76만4000명, KT스카이라이프 79만9000명으로 나누어 산정했다.

아울러, 이번 산정·검증 결과는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의 가입자는 제외하는 등 시장점유율 규제 목적에 따라 산출된 결과이며, 실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입자 수와는 차이가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 규모를 기반으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는 상이할 수 있다.

서선옥기자

중소 세 자릿수 채용 사라졌다...신입사원 증발 ‘현실화’

올해 대졸신입 채용기업 74.8% ‘한 자릿수 뽑았다’



올 한해 기업들의 대졸 신입사원 모집규모는 대체로 한 자릿수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2020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주제로 조사한 결과다. 기업 536곳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올해 신입사원을 1명이라도 채용한 기업 비율은 67.0%로 지난해 85.5% 대비 18.5%p 감소한 것으로 대조를 보였다.

이들 기업에서 채용한 신입사원 규모를 자릿수로 선택하게 한 결과 ▲(한 자릿수 채용)0명대가 74.8%로

지배적이었다. 이에 비해 ▲(두 자릿수 채용)00명대는 22.7%로 3분의 1 이상 줄었고, 급기야 ▲(세 자릿수 채용)000명대는 고작 2.5%에 불과했다.

즉 올해 신입사원을 모집한 기업 4곳 중 3곳은 그 규모가 한 자릿수였다 것으로, 신입사원을 뽑더라도 1명에서 최대 9명 이하의 소규모 채용에 그쳤다는 것이다.

인크루트는 앞서 지난 8월 하반기 채용동향조사를 통해 이를 예측했다. 당시 조사결과 기업 64.1%가 하반기 ▲한 자릿수 신입채용 계획을 밝혔던 것으로, 기업들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보수적인 채용에 나섰음이 증명됐다.

기업별로는 ▲대기업(한 자릿수 41.1%, 두 자릿수 47.1%, 세 자릿수 11.8%) ▲중견기업(한 자릿수 42.1%, 두 자릿수 57.9%) ▲중소기업(한 자릿수 89.2%, 두 자릿수 10.8%)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세 자릿수 채용은 대기업에서 유일(11.8%)했고, 중견 및 중소기업에서는 전무했다.

기동취재본부